

한국어 능숙한 'K-챗GPT' 기반 구체화

문체부, 3개 워킹그룹 발족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구축 확대
2027년까지 10억 어절 구축 계획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챗GPT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어를 잘하는 K-챗GPT'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챗GPT는 AI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현재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해 완성된 문장 형태로 답변을 해주며 수준도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기술 변화에 따라 문화와 제도,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저작권 제도 개선,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이 그것이다. 세 분야 워킹그룹을 통해 전문가와 문제부가 긴밀히 논의해 정책적인 답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어를 잘하는 K-챗GPT'이다. 챗GPT가 영어권에서 개발된 탓에 한국어 대응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AI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고품질 말뭉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를 잘하는 K-챗GP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구축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개발 현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23일 준비회의를 거쳐 오는 3월 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인공지능과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어원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말뭉치 수요를 파악한다. 이후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고품질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챗GPT의 발달로 숙제나 시험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들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진은 KT DS에서 출시한 부정행위 탐지 솔루션 아르고스. /연합뉴스

다.

무엇보다 올해 한국어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25종 약 1억2000만 어절의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도 구축해 배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언어모델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생성하는지 나아가 한국의 문화와 사회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평가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문체부는 24일 AI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이 워킹그룹에서는 AI 학습데이터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방안을 비롯해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문제,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러한 부분은 AI 활용과 맞물려 제기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과 연관돼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콘텐츠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콘텐츠 분야 AI TF'를 구성했다. 우리나라 AI의 선구자인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외에 AI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됐다.

'콘텐츠 분야 AI TF'는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고 AI 활용 범위가 문화, 콘텐츠로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콘텐츠 산업에 AI가 성공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TF를 통해 청취한 의견과 제언을 종합해 AI를 활용한 콘텐츠산업 분야 지원 대책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지컬:100' 2주 연속 넷플 비영어권 1위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피지컬: 100'과 '연애대전'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시청 시간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22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TOP) 10'에 따르면 '피지컬: 100'은 2월 셋째 주(13~19) 시청 시간이 4542만 시간을 기록해 비영어권 TV 부문 1위에 2주 연속 올랐다.

지난달 24일부터 매주 2회씩 순차 공개되고 있는 '피지컬: 100'은 공개 첫 주인 1월 마지막 주(1월 23일~29일) 7위로 출발해 2월 첫째 주(1월 30일~2월 5일) 2위, 2월 둘째 주(6~12일) 1위로 상승세를 탔다.

'피지컬: 100'은 상금 3억원을 걸고 참가자 100명 가운데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는 서바이벌 예능으로, MBC 다큐멘터리팀

소속 장호기 PD가 기획·연출을 맡았다.

지난 10일 공개된 한국 드라마 '연애대전'은 '피지컬: 100' 뒤를 이어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연애대전'은 2월 둘째 주 8위(1127만 시간)로 10위권에 진입했고, 셋째 주에는 시청 시간 2857만 시간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한국 드라마 4편이 2월 셋째 주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현재 tvN에서 방영 중인 전도연·정경호 주연의 '일타스캔들'이 4위(2152만 시간), 2021년 종영한 tvN '철인왕후: 대나무숲'이 5위(2095만 시간), 같은 해 종영한 tvN '여신강림'이 7위(1494만 시간)에 올랐다. 지난달 종영한 tvN '환혼2'는 9위(1190만 시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성형 미스터리물 '룩앳미'

이민기-한지현 파트너 호흡

배우 이민기와 한지현이 성형을 소재로 한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룩앳미'에서 호흡을 맞췄다.

제작사 웨스트윌드스토리사는 '룩앳미'에 이민기와 한지현을 캐스팅하고 다음 달 촬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룩앳미'는 명성을 떨치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뒤 범죄피해자 재건 성형을 하게 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가는 이야기다.

이민기가 '의느남' (의사와 하나님의 합성어)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 차정우를, 한지현은 공감 능력을 갖춘 자타공인 강력계 에이스 형사 이민형을 연기한다.

2023년 하반기 웨이브서 공개. /연합뉴스

'서진이네' 금요일 개업 합니다



왼쪽부터 박서준, 정유미, 이서진, 최우식, 뷔, 나영석 PD.

멕시코서 K-분식 이변주 첫 방 이서진·정유미·박서준 등 출연

배우 이서진이 멕시코에서 김밥,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 사장이 됐다. 직원은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

이서진과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 뷔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tvN 예능 '서진이네'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정말 일단 열심히 했다"고 입을 모아 촬영 후기를 전했다.

'서진이네'는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윤식당'의 스핀오프다. '서진이네'가 오픈한 곳은 멕시코의 해안마을, 김밥, 떡볶이, 김말이, 라면 등 분식들이 주메뉴다.

'윤식당'에서 이사였던 이서진이 사장으로서 가게를 진두지휘하며, 정유미는 이사로, 박서준은 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윤스테이'에서 호흡을 맞춘 최우식은 경력직 인턴으로, 뷔는 신입 인턴으로 합류했다.

이서진은 사장이 된 소감을 묻자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누구 밑에서 일할 수 없지 않겠나"며 "눈치 보지 않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웃었다.

뉴욕대 경영학과 출신인 이서진은 배우 윤여정을 사장으로서 모시고 식당을 운영했던 '윤식당' 때와는 달리 철저한 자본주의 경영 철칙을 내세운다.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는 "'윤식당'이 힐링 프로그램이었다면, '서진이네'는 생존경쟁 느낌으로 바뀌었다"며 "사장님의 철학이 '수익이 왕'이어서, 식당 경영 시뮬레이션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님이 연공서열을 굉장히 중시해서 오피스 드라마처럼 능력주의, 성과에 대한 집착, 견제가 일어난다"며 "이렇게 직원들이 승진하고 싶어하는지 물렸다"고 말했다.

'서진이네'에는 글로벌 스타인 뷔가 '김 인턴'으로 합류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뷔는 "촬영 끝나고 집에 돌아와 링거를 3번 맞았다"며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말해 기대를 모았다.

이어 "서방을 기대하고 있는데, 요리를 시켜서 깜짝 놀랐다. 요리는 방탄 멤버들 안에서도 최하인데 '왜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배우면서 '요리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웃었다.

나 PD는 뷔를 섭외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른 프로그램인) '채널 심오야'에서 태형(뷔)씨가 '깡판권'을 타갔는데, 그게 옷장에 소중히 모셔져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서진을 가장 당황하게 한 사람이 태형"이라며 "아무래도 어려서 눈치를 덜 보다 보니 사장님이 매를 때려서 괴로워하는데 '내일 놀러 가면 안 되나', '월급은 없냐'는 얘기를 한다. 그게 매력"이라고 귀띔했다.

이서진은 사장으로서 직원 뷔에 대해 "시키는 일은 묵묵히 잘한다. 술선수범은 하지 않지만, 술선수범해서 일을 망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뷔는 이서진에 대해 "좋은 형"이라며 사장으로서는 100점 만점에 95점을 줬다.

'윤식당'과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윤스테이'에서 호흡을 맞춘 기존 멤버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주방에서 김밥 마는 일을 담당할 정유미는 "날씨가 더워서 재료가 상하면 안 되다 보니 더 어려웠다"며 "재료를 부으려면 잘 문쳐서 저도, 생야채를 썰다 보니 흠뻑 젖어서 말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서준은 "'윤식당' 때보다 일이 훨씬 많았다"고, 최우식은 "이번에 정말 잘해서 저도 다음에 ('윤식당'에) 들어가 싶다"고 덧붙였다.

'서진이네'는 24일 오후 8시 50분 처음 방송되며,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통해 세계에 동시 공개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